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1. 25.(목) 14:00 < 1.26.(금) 조간 > 배포 2024. 1. 25.(목)

국내 최초, 마산에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

- 디지털전환시대를 맞아 데이터·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기업 집적지로 육성
- 유·무형의 재화를 생산·수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출특구 조성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마산지역 두번째 자유무역지역을 1.25(목) 신규지정·고시(33,089㎡)하였다.

이는 마산이 1970년 최초로 자유무역지역*으로 지정되어 수출 확대,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,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 수출거점으로 재도약 필요성과 입주율(97%)이 포화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였다.

*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진흥, 외투유치, 지역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'70년 최초 지정된 이래, 마산·군산 등 산단형 7개지역, 부산항·인천공항 등 공·항만형 6개지역 총 13개지역 지정·운영 중

신규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은 마산의 핵심전략산업인 지능형기계, 제조정보통신기술(ICT)산업 육성을 위해, 전통제조업 위주인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달리, 데이터·네트워크·인공지능 등 지식기반·정보통신기업 및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으로,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,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하였다.

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자유로운 제조·물류·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, 저렴한 임대료(공시지가의 1% 수준), 관세유보 혜택 등이 주어지며, 일정규모*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.

* (예시) 미화 5백만불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, 원화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 복귀기업에게는 10년간 임대료의 75% 감면 등

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"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첨단수출·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 중으로, 이번 신규지정을 통해 연간 5,41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,441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"면서 "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해 정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	책임자	과 장	박학희 (044-203-4630)
		담당자	사무관	이금용 (044-203-463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1 신규지정 자유무역지역 위치도 및 구상도





참고 2 자유무역지역 현황

□ **(개념·목적)** 수출·물류 확대, 외투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·물류·유통,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지역

*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으로 관세영역 외의 지역으로 관세법 등의 적용에서 예외 인정

※ **(지원해택)** 관세 유보, 부가가치 영세율, 저렴한 임대료(공시지가의 1% 수준),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·임대료 감면 등

□ **(지정현황)** 13개 지정·운영(면적 34.81㎢, 여의도 면적의 12.0배)

※ **(관리·운영)** 자유무역지역 지정, 정책·제도·법 등 총괄은 산업부, 관리는 유형별로 3개 부처(산업부, 해수부, 국토부) 담당

구 분		지정일	면 적	관리권자
산단형 (5.8㎢)	마 산	'70. 1. 1	0.96㎢	산업부 (자유무역지역 관리원)
	군 산	'00.10. 6	1.26㎢	
	대 불	'02.11.21	1.16㎢	
	동 해	'05.12.12	0.25㎢	
	율 촌	'05.12.12	0.34㎢	
	울 산	'08.12. 8	0.82㎢	
	김 제	'09. 1. 6	0.99㎢	
항만형 (25.6㎢)	부 산 항	'02. 1. 1	12.2㎢	해수부 (해양청/항만공사)
	광 양 항	'02. 1. 1	9.05㎢	
	인 천 항	'03. 1. 1	1.96㎢	
	포 항 항	'08.12. 8	0.93㎢	
	평택당진항	'09. 3.30	1.43㎢	
공항형 (3.46㎢)	인 천 공 항	'05. 4. 6	3.46㎢	국토부 (항공청/공항공사)
합 계			34.81㎢	

